

청년환경센터(대표직무대행 황성원)

# 내년 지자체 선거 · 대선 · 월드컵 대응 준비운동

99년 2월 발족한 준비위원회의 활동을 거쳐 2000년 8월에 창립된 '청년환경센터'는 자본주의 체제의 극대화 과정에서 환경파괴가 자행되는 구체적인 양상 및 사례의 수집과 이에 대한 실천을 모색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재정적·인적 기틀을 잡고 내년에 예정되고 있는 지자체 선거와 대선 그리고 월드컵 등의 주요 일정 속에서 환경운동의 색깔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 우리나라 환경운동은 사실 초기에는 환경운동의 성격보다는 사회 전반의 부조리와 모순에 맞서 싸우기 위한 반공해·반정권운동으로서의 색채가 짙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운동은 본연의 생활 환경운동으로 일반인들의 생활 속 깊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 한데 우리의 환경운동 현황을 평가하신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항쟁이 불붙었던 87년부터 시작해서 90년을 안팎으로 환경운동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초기 환경운동은 환경운동 그 자체로서의 성격보다는 사회 전반의 부조리와 모순에 맞서 싸우기 위한 반공해·반정권운동으로서의 색채가 짙었다고 생각합니다. 10년여를 경과하는 동안에 일반인들의 생활을 파괴드는 생활환경운동, 생명의 가치를 드높이는데 목적을 두는 생명운동,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힘쓰는 생태보전운동 중심으로 분화·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초기에는 정부나 기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

했던 환경운동이 오늘날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함께 연계할 수도 있는 파트너로서 인식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 사실 그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자연환경(생태계)의 훼손 등을 고려치 않는 개발 독재 정책이 지속돼 오며 국민들의 생활에 여러모로 많은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자연환경(생태계)의 훼손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다른 산업국가들과 다르지 않게 경제발전을 제1순위로 놓고 성장의 대로를 질주해왔던 한국사회에서 성장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규모에 있어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광대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경제성장 따른 환경파괴 심각

대기와 수질의 오염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편을 겪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공장과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해물질을 직접적으로 들이마시고 방사능에 피폭되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지구온난화가 야기한 해수면 상승을 비롯한 지구환경의 변화와 기상재해의 빈발 등은 매해마다 수천 수만의 사상자 및 이재민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대 산업집단에 의해 주도된 막대한 생태계 파괴의 피해는 역으로 사회적·생물학적·경제적 약자들에게 보다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청정한 지역의 주거지가 대부분 값나가는 부자집들이고 공장 등 오염 시

실물 부근에는 빈곤층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 그러면 이러한 자연환경(생태계)의 보호가 중요한 이유는?

▶ 자연환경 파괴는 곧 자살행위와도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자연환경에 의존해서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내에서는 오직 식물만이 햇볕과 물만으로 생존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식물과 같은 생산자와 1, 2차 소비자들을 취함으로써만이 생존 가능합니다. 더구나 인간은 식량 뿐만 아니라 그 외 생활에 필수적인 수많은 재화들을 자연자원을 이용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면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내의 수많은 생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생태계의 파괴는 파괴를 일으킨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세대 이후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환경 파괴는 미래세대에 대한 범죄행위이기도 합니다.

■ '청년환경센터'가 출범한 경과와 동기는?

▶ 청년환경센터는 99년 2월부터 준비위원회의 형태로 활동하였으며, 2000년 8월에 창립을 하였습니다. 준비위원회 초기에는 '이념이 있는 환경운동, 실천하는 환경운동'을 기치로 하여 울산 신규 핵발전소건설 반대운동 등 반핵운동에 주력하였으며, 창립총회를 통해 '반자본 환경운동'을 천명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환경파괴 감시

청년환경센터가 출범하게 된 주요 동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무제한적 팽창과정 속에 환경파괴가 날로 심화되어 가는 것을 직시하면서 환경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소위 '민중'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는 환경운동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자본주의 체제의 극대화 과정에서 환경파괴가 자행되는 구체적인 양상 및 사례에 대한 수집과 이에 대항하는 실천을 모색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방식에 있어서 환경파괴

의 주범인 기업 및 정부와의 공조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며, 회원참여의 형식을 다변화함으로써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 '청년환경센터'의 구체적인 사업목표는?

▶ 2001년에는 재정적·인적 기틀을 잡아가고자 합니다. 창립한지 1년 남짓하여 활동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가 많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고질적인 재정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활동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회원의 양적 확보는 그만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올 한해동안 중요하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올 중반 이후에는 반자본 환경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양태를 대중적으로 실험하고 2002년 예정되어 있는 지자체와 대선, 그리고 월드컵 등의 주요 일정들 속에서 환경운동의 색깔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 환경운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론에 맞닥드릴 때 가장 난감해지곤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에 대한 반응이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역시 자신의 정당한 권리로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우리 국민들이 환경운동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환경운동을 실천함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위한 우리의 실천이 '남을 위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에 우리 세대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 후손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면 그것 역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후손들에 좋은 환경 물려주기 위해

우리의 생활 속에 유해한 상품이나 식품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생활을 환경적으로 재구성하는



다른 환경단체와 함께 울산핵발전소 추가건설 반대시위를 하고있는 청년환경센터 회원들

▶ 글썄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말 못하는 나무와 풀을 지키고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을 보존하는 등의 환경을 위한 실천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음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언제 우리가 유전자 조작식품의 피해자가 될지, 환경호르몬의 누적된 악영향으로 고통받게 될지, 누적된 공장 오염물질로 인해 치유 불가능한 병에 걸리게 될지, 온실가스로 인한 막대한 기상이변의 피해자가 되어 목숨을 앗길지, 누구도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유행만을 좇아 불필요한 것을 사들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은 더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버리려고 하지는 않는지, 무분별한 소비생활도 대량의 쓰레기를 양산함으로 인해 환경파괴에 손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형국입니다. 이러한 생활 속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친환경적인 삶과 사회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기 위해서 환경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직접적인 운동들에 대한 후원과 더불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단서들을 계속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청년환경센터’의 21세기 사업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반자본 환경운동의 이론과 실천으로 기초를 다져나 가겠습니다. 자본, 즉 산업집단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환경적인 피해의 양상을 분석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모아 저항의 움직임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제반 운동세력들과의 연대를 통한 보다 견실한 힘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

예측할 수 없습니다. 환경운동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운동임과 동시에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부당하게 환경적 피해를 더욱 가중받게 되는 것을 막아내는 사회 정의를 위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가 바빠서...’라는 말은 이제 더욱 광폭해진 환경피해의 양상들 속에 무색해지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지키는 행동 역시 먹고사는 문제 만큼이나 절실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선에 나서서 행동을 취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구공동체를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에 꾸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 청년환경센터는 아직 많이 알려진 단체는 아닌데 주요 임원들과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 대부분의 상근자들은 대학을 다닐 때부터 환경운동에 몸담았던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나이로 보자면 아직 사회 초년병들이지만,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대부분 환경운동 경력 4~5년 정도는 됩니다. 그래도 아직 사회경험이 짧아 내용과 기백에서 부실함이 엿보이기도 하지만 그 젊음 만큼이나 환경운동에 대한 열정도 상당합니다. 패기는 있으되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되 자신감을 잃지 않는 활동가들이 되고자 합니다. ①

송해영 <본지 4월기자>